

HEADLINE NEWS

에너지효율적이고 환경오염이 적은 그린건축정책 추진 (미국·유럽)

그동안 전통적 방식으로 건설해온 사무용 빌딩들의 높은 에너지소비량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 '그린건축(Green Architecture)' 개념이 등장하여 현재 건축시장의 주류로 성장하였다. 미국내 사무용 빌딩들은 전체 전기소비량의 65%, 에너지소비량의 36%, 온실가스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린건축의 주요한 혜택은 에너지효율적인 건축설계로 인한 에너지비용 감소,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사용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하다.

최근 국가환경정책의 일환인 에너지효율적인 그린빌딩 건설 관련정책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0년에 건물의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인 BREEAM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을 도입하여 건물의 환경친화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00년도에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표준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www.economist.com/displaystory.cfm?story_id=3422965)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트랜짓 빌리지' 조성을 통한 주택부족 해소 (샌프란시스코)
- ② 구(區) 전역에 경관유지를 위한 건축물 절대높이제한 도입 (동경: 신주쿠區)
- ③ '멜버른의 도크랜드 재개발 프로젝트', 2004년 호주 최우수 도시설계상 수상 (멜버른)
- ④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법안 통과 미국 오리곤州)

도시환경

- ⑤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제설재 사용 (부다페스트)
- ⑥ 위생상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요식업계 (프라하)
- ⑦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Hybrid)자동차 구매자에게 세금감면혜택 제공 (캘리포니아州: 산타클라라市)

도시교통

- ⑧ 버스우선신호제 도입 이후 버스 운행시간 절감효과 발생 (시드니)
- ⑨ 대중교통부문 재난방재계획의 평가 및 재검토 추진 (플로리다州: 텔러해시市)
- ⑩ 주차공간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 웨어링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市)

사회복지문화

- ⑪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공급을 위해 7차원 대상 능력개발 자금 집행 (스톡홀름)
- ⑫ 이동도서관서비스 유지를 위한 시의회의 자금 지원 (시애틀)

행재정

- ⑬ IT(정보기술)를 사회에 적용한 우수사례 선정·시상 (헬싱키)

① ‘트랜짓 빌리지’ 조성을 통한 주택부족 해소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교통과 토지이용 연합(The Transportation and Land Use Coalition)’은 캘리포니아 베이(Bay) 지역의 주택부족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트랜짓역 주변의 토지를 ‘Transit Opportunity Zones’로 지정하여 대형할인매장이나 쇼핑센터의 입지를 제한하고, 트랜짓 이용인구를 위한 주택공급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트랜짓 빌리지’의 개발 전략은 밀도(Density), 다양성(Diversity), 그리고 디자인(Design)에 근거하여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고서는 PDF파일로 이용가능하다.

(www.transcoalition.org/reports/village/village.pdf)

② 구(區) 전역에 경관유지를 위한 건축물 절대높이제한 도입 (동경: 신주쿠區)

東京都 신주쿠구(新宿區)는 고층맨션 건설을 규제하고 토지의 유효한 고도이용과 시가지 경관 및 거주환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JR 신주쿠역 주변의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역에 절대높이제한을 도입할 방침이다. 2005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예정이다. 都內에는 이미 메쿠로(自黒)와 세타가야구(世田谷區) 등에서 절대높이제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도심에서 구(區)면적의 약 80%를 대상으로 높이규제를 한 예는 없다. 높이제한은 주택지역 20m에서 상업지역 60m까지 10m씩 5단계(20m, 30m, 40m, 50m, 60m)에 걸쳐 설정하고, 규제대상면적은 1,426ha이다. 도시재생 특례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긴급정비지역, 동경도청 등 고층 빌딩이 즐비한 부도심정비계획의 정비구역, 도시계획법의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등은 제외한다.

(일본경제신문, 2004. 12. 15)

③ ‘멜버른의 도크랜드 재개발 프로젝트’, 2004년 호주 최우수 도시설계상 수상 (멜버른)

호주의 2004년 최우수 도시설계상은 ‘멜버른(Melbourne)의 도크랜드(Docklands) 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VicUrban 그룹에 돌아갔다. VicUrban 그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설계기법과 개발정책을 제공하였다. 또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침(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 커뮤니티 발전계획(Community Development Plan), 활력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장소성 전략 등을 도크랜드 재개발에 적용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혼합용도 개발로서, 완성시 20,000명의 주거인구와 30,000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매일 55,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ww.docklands.com/docklands/news/news/20041116.shtml)

④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법안 통과 (미국 오리곤주)

미국 오리곤주의 성장관리정책은 1973년 도시성장한계선(Urban Growth Boundary)을 중심으로 지난 31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2004년 11월 2일에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Measure 37’ 법이 통과됨으로써 최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 법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옹호하는 법으로, 지방정부가 토지이용규제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성장한계선이나 기타 성장관리정책에 묶여 개발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자들은 정부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보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www.mlui.org/growthmanagement/fullarticle.asp?fileid=16775)

5]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제설재 사용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市는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제설에 쓰이는 염화칼슘의 살포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최근 발표하였다. 이에 부다페스트市의 도로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FKFV(Fővárosi Közterület-fenntartó Vállalat Rt)도 부식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부식재나 염화칼슘과 같은 제설재 대신 석영모래(quartz sand)와 비석(zeolit) 등의 미끄럼방지재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FKFV는 제설인부를 고용하여 쌓인 눈을 치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였다. 부다페스트市의 차량소유자들은 염화칼슘이 자동차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하여 왔다.

(www.budapestsun.com/full_story.asp?ArticleId={A2E6704EACB84D22871E10F1F74A6B17}&From=News)

6] 위생상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요식업계 (프라하)

브뤼셀에서 EU의 보다 강화된 위생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체코 프라하의 많은 음식점들이 취사장의 위생상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프라하市 당국은 음식점들이 음식저장소 및 기타 설비의 향상에 크게 투자하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들은 하이테크 장비를 도입하기도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음식점의 설비투자는 주로 음식이 차려지기 전후의 보관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기존에는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할 음식물이 흔히 상온에 방치되었으며, 따뜻한 음식물은 특별한 시설이 없어 흠에서 식었다고 市당국은 밝혔다. 한편, 프라하市 당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행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음식점들의 바가지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市당국은 향후 여론조사와 신(新)위생기준을 검토하여 요식업계의 전반적인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www.praguepost.com/P03/2004/Art/1111/busi8.php)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7]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Santa Clara)市는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市의 노력과 더불어, 산타클라라市의 소프트웨어업체인 하이퍼리온(Hyperion)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직원에게 일인당 5,000달러씩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하이퍼리온은 미국 내 1,500명, 그리고 해외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IT업체이다.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이 적은 도요타 자동차의 프리어스(Prius), 혼다자동차의 인사이트(Insight)와 시빅(Civic)이며, 대당가격은 약 21,000달러 수준이다.

(www.usatoday.com/money/autos/2004-11-29-hyperion_x.htm)

8] 버스우선신호제 도입 이후 버스 운행시간 절감효과 발생 (시드니)

호주 시드니의 한 주요 버스노선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버스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이후 실제 버스 운행시간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RTA(Roads and Traffic Authority)가 개발하고 대중교통 정보 및 우선시스템(Public Transport Information and Priority System)에 의해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특히 버스의 지연운행을 방지하여 정시 운행률을 37%나 향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시 출발에 있어서는 15.5%의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시스템은 버스가 언제 신호교차로에 도착할지를 예측하여 버스 진행방향에 녹색신호를 확보해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앞으로 기존 시스템을 좀더 정교화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주요 노선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www.rta.nsw.gov.au/newsevents/2004_11_buspriority.html)

9 대중교통부문 재난방재계획의 평가 및 재검토 추진 (플로리다 州: 텔러해시市)

미국의 플로리다州 교통당국은 2004년 여름 4개의 대형 태풍을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겪으면서 드러난 대중교통부문 재난방재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한 평가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평가는 기존의 재난대처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점검하여 향후 보다 나은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6개월에 걸쳐 실시될 이 평가 작업의 내용은, 자세한 시간대별 태풍 진행상황의 정리, 자치단체별 대응조치 정리, 대중교통부문 재난방재계획의 평가, 정부 위계별·조직별 방재계획의 실태 및 대응조치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태풍과 같은 재해발생 전후에 시행되어야 할 조치를 재정립하여 제안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대상에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긴급상황실의 대응실태 또한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www.ftpn.cutr.usf.edu/FTPN%20Newsletters/FTPN%20Newsletter%20Nov%202004.pdf)

10 주차공간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 쉐어링 (매사추세츠 州: 캠브리지市)

미국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Cambridge)의 자동차 쉐어 회사인 'ZipCar'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ZipCar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현재 캠브리지 주민의 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ZipCar의 이용료는 시간당 8.5달러 수준이며, 장기플랜을 선택하면 다양한 옵션과 할인이 추가된다. 캠브리지에 이어 보스톤, 뉴욕, 워싱턴 D.C.에서도 ZipCar를 운영하고 있다. ZipCar의 장점은 이용자들이 렌터카보다 더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市차원에서는 특히 주차공간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www2.townonline.com/cambridge/businessNews/view.bg?articleid=142315)

④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공급을 위해 市직원 대상 능력개발자금 집행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市的 약 5만 명의 직원들 중 대다수가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교육기관, 보육원 등의 보육서비스(Care Services)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린이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이 늘어나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된다. 이에 市당국은 단순한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市는 앞으로 3년 동안 20억 SEK(한화 3천억 원)를 직원들의 기술향상, 리더십 강화, 신조직 구조에의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이고, 양로시설에 근무하는 1,500명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이미 약 130개의 프로젝트에 7억 SEK(한화 1천억 원)를 집행하였다. 자금 집행의 주요 목적은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과 市당국의 예산지출 감소에 있다고 자금담당부서장은 밝혔다. (www2.stockholm.se/english/pdf/CityNews_autumn_2004.pdf)

④ 이동도서관서비스 유지를 위한 시의회인 자금 지원 (시애틀)

미국 시애틀 시의회는 시애틀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부분적 자금 지원 예산안을 채택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은 210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이동도서관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경유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동도서관의 순회주기 등은 새롭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은 새롭게 조정된 이동도서관 스케줄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예산삭감 없이 도서관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시의회는 도서관의 도서자료예산에 5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www.spl.org/default.asp?pageID=about_news_detail&cid=1100800672531)

④ IT(정보기술)를 사회에 적용한 우수사례 선정·시상 (헬싱키)

2004년 11월 23일 핀란드 국무총리 Matti Vanhanen은 정보기술을 훌륭하게 활용한 사례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였다. 총 198개의 경쟁작 중 우수작으로 무선건강관리에약서비스, 학교수업기법이 적용된 인터넷 가상수업, 도로지도 등이 선정되었으며, 이동전화티켓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동전화티켓은 헬싱키에서 대중교통 부문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또 공공부문 수상작은 공공 행정 웹서비스에 돌아갔다.

이 상은 핀란드 전 사회에 정보기술이 적용된 좋은 사례를 소개하여 대중에게 알림과 동시에 좋은 서비스 개발과 현재 있는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경쟁을 통해 개발을 가속화시켜 IT 관련 국제시장에 더욱 근접시키는 것이다.

(www.valtioneuvosto.fi/vn/liston/base.lsp?r=90208&k=en)